

# 이 성전을 버려

역대하 7:19-22, 찬송가 446장

##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2 성경읽기

### 새번역 성경

19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

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20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21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 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22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 개역개정 성경

19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

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 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21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 3 본문 설명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이켜 우상을 섬길 때에는 이 화려한 성전이라도 기꺼이 버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려한 성전을 버리실 때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과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애를 바라시며 그분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호6:6).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수 많은 헌금과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외형적 경건이 의미가 없으며 성전은 버려질 것입니다.

가식적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사랑 위에서 서도록 구합니다.

### + 성경사전

•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20절) : 비웃음거리와 놀림거리가 된다는 의미

## 4 삶의 나눔

## 5 함께하는 기도

## 6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 본문 요약

### One-Point 묵상

1 묵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